

2015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④	2	④	3	②	4	⑤	5	④
6	①	7	⑤	8	①	9	②	10	④
11	⑤	12	⑤	13	①	14	④	15	①
16	③	17	⑤	18	②	19	③	20	③

1. [출제의도] 인간의 특성 이해하기
- 제시문의 ‘나’는 인종차별적인 법령에 저항하여 신념을 지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신념을 실천하여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공자와 맹자의 사상 파악하기
- 같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공자는 통치자가 백성을 덕으로 감화시키는 덕치(德治)를 강조하였고, 이를 계승한 맹자는 백성들의 항심(恒心)을 보존하기 위해 통치자가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恒産]을 보장해야 한다는 왕도(王道) 정치를 주장하였다. 이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통치의 핵심으로 군주의 도덕적인 자질을 강조하였다.
3.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 제시문은 노자의 글이다. 노자는 자연(自然)의 흐름에 따라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으며 문명의 발달이 없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의 사회를 주장하였다. 노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으로 보고,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을 통해 소박하고 순수한 덕에 따르는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였다.
4. [출제의도] 현대 덕 윤리의 특징 이해하기
- 제시문의 ‘어느 현대 윤리 사상’은 덕 윤리이다. 덕 윤리는 인간 내면의 도덕성의 근원과 개인의 인성을 소홀히 한 채 도덕적 의무와 원리의 탐구에만 치중한 근대 윤리를 비판하면서 선한 행위를 하려면 유덕한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덕 윤리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과 동기를 중시하며, 도덕 판단에서 행위보다는 행위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출제의도] 오캄과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하기
- 같은 오캄, 을은 아퀴나스이다. 오캄은 신학으로부터 철학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고, 아퀴나스는 신학(신앙)과 철학(이성)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한편 두 사상가 모두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밀과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 같은 밀, 을은 칸트이다. 밀은 공리주의 사상가로 사회적 이익의 산출이 옳은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도덕적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행위의 결과라고 보았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결코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동기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참된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과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

하는 것을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8. [출제의도] 혜능과 장자 사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 같은 선종 사상가 혜능, 을은 장자이다. 혜능은 이심전심(以心傳心) 등의 종지(宗旨)를 통해 이론적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단번에 마음속의 불성(佛性)을 깨닫는 돈오(頓悟)를 강조하였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존중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야 함을 강조하였다.
9. [출제의도]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상 이해하기
- (가)는 공동체주의 사상이고, (나)는 자유주의 사상이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고, 권리보다 책임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국가와 사회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이다. 따라서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에 비해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상호 유기적으로 여기는 정도, 공동선 실현을 위한 개인의 헌신을 요구하는 정도가 높다.
10. [출제의도] 동도서기론, 증산교, 동학 사상 이해하기
- 같은 동도서기(東道西器)론을 주장한 신기선, 을은 증산교의 강일순, 병은 동학의 최제우이다. 동도서기론은 서양의 과학 기술 수용을 주장하였고, 동학은 서학(西學)에 대항하는 사상을 표방하였으며, 증산교와 동학은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회를 현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후천 개벽(後天開闢)을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듀이의 사상 이해하기
- (가)는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이다. 듀이는 결과와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과 윤리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12. [출제의도] 케인스와 마르크스의 사회사상 비교하기
- 같은 케인스, 을은 마르크스이다. 케인스는 자본주의 사상가로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상가로 국가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를 지지한 점은 케인스에게만 해당된다.
13.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 같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덕을 지닌 삶과 행복한 삶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의 모든 계층이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행위의 반복을 통해 도덕적 덕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앎과 실천의 지를 유덕함의 원천으로 보았다.
14.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이해하기
- 같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한 것으로,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보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것으로 보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다. 사단칠정론에 있어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분리된 것으로, 이이는 칠정이 사단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15. [출제의도] 스토아학과 스피노자의 공통점 파악하기
- 같은 스토아학과 사상가인 에픽테토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정신 상태[apatheia]에 도달할 것을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자연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인과 법칙에 따른 필연적 질서를 인식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스토아학과 스피노자는 모두 정념에서 해방되어 평온한 삶을 영위할 것을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주자에 대한 왕양명의 비판 이해하기
- 같은 주자, 을은 왕양명이다. 왕양명은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이자 양지(良知)이며, 양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致良知]을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주자는 성이 곧 이치[性即理]이며, 외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할 것[格物致知]을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흄과 길리건의 사상 이해하기
- 같은 흄, 을은 배려 윤리 사상가 길리건이다. 흄은 감정을 도덕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자 행위의 동기라고 보았으며 공감(共感)을 중시하였다. 배려 윤리는 타인에 대한 보살핌, 유대감, 공감과 동정심을 중시하며 도덕적 성숙을 위해서는 배려 윤리와 정의 윤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18. [출제의도] 순자와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 같은 순자, 을은 정약용이다. 성악설의 입장인 순자는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것[化性起偽]을 주장하였다. 성기호설의 입장인 정약용은 선(善)을 좋아하는 기호를 발휘하여 실천함으로써 덕이 형성됨을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불교와 쇼펜하우어의 사상 이해하기
- 같은 석가모니, 을은 쇼펜하우어이다. 불교에서는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를 자각하여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낳는 맹목적 의지를 부정하는 금욕을 통해 고통을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심의 민주주의 이해하기
- 제시문은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 민주주의가 요청된다는 글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구성원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의 활성화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